

자립장애인 입주 주택과 일자리 연계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1차관,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6일(목)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광역시를 방문하여 자립장애인이 입주한 주택과 일자리 연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2022~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약 9년간 생활하다가 작년 1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LH 매입임대)으로 입주한 대상자의 주택을 방문하여, 장애 특성이 고려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약 16년간 생활하다가 올해 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 입주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를 만나 자립생활을 격려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 대상자 서비스 연계 현황
 3.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팀 장	정명현 (044-202-3180)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	담당자	사무관	전준호 (044-202-3181)



□ **사업목표**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모형 마련 및 효과 검증**
-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대비 ① 지원 대상 규모 추계 ② 대상별 지원모형 구체화 ③ 자립 효과 분석·평가 등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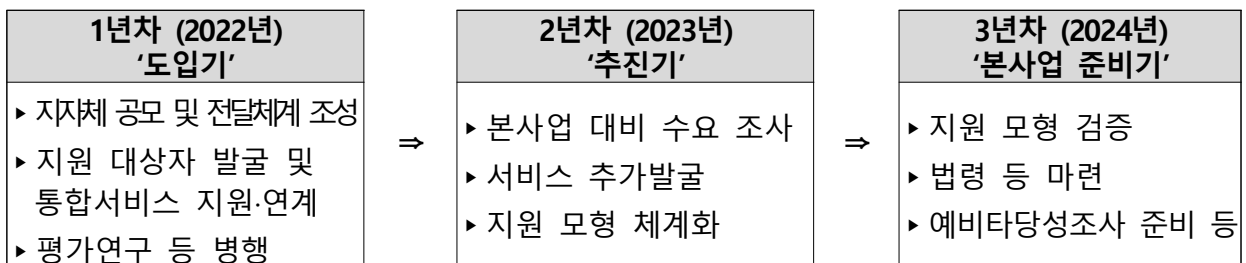
- **(사업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입소대기자) 대상
 - * 참여지역(총 17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성남시·안산시·의왕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사·군산시·익산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남도 거창, 경상북도 경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제주도 제주시
- **(사업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액 (국비 기준) * 국비, 지방비 매칭(5:5)	2,154	4,834

- **(사업내용)** 대상자 발굴 및 자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서비스 복합 지원·연계
 - 당사자의 자립의사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별 자립 과정 분석
 -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활용(장애인 4명당 1명)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역사회 자립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 지원
- **(사업기간)** '22~'24년

<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



□ 자립 세부 현황

○ (전환완료) 83명

* 부산22, 대구10, 인천13, 경주5, 제주6, 전주13, 화순3, 광주6, 서산3

○ (유형별 현황)

- 장애유형 및 정도 현황 : △지적 45명, △지체 15명, △뇌병변 8명, △시각 2명, △중복 13명

- 대상자별 현황 : △거주시설 71명, △학대피해쉼터 6명, △단기거주시설 1명, △입소대기자 5명

- 지원유형 현황 : △자립지원형 61명, △집중지원형 22명

* 자립지원형(활동지원 월40시간)은 일자리 등 참여 가능한 수준의 장애, 집중지원형(활동지원 월200시간)은 일자리 참여는 어려우나, 바깥 활동 등 참여 가능한 수준의 장애

○ (서비스 연계 현황)

- 일자리 : 34명(지적 22명, 시각 1명, 뇌병변 1명, 지체 3명, 중복 7명)

* △직업재활시설 11명, △복지일자리 7명, △보호작업장 2명, △시각안마 1명, △요양원 2명, △종합복지관 2명, △시간제일자리 5명, △활동가 2명, △일반 일자리 2명

-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 33명(신청 포함)

* 발달장애인 57명 중 31명 이용 중(그 외 후견인 지원, 보호자, 본인 및 수행기관 지원)

- 건강관리지원 : 83명

* △건강주치의 연계 17명(7명 예정), △지역병원 이용 38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용 20명

-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 71명

붙임3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

구분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대상		· 일자리 연계 등 지역사회 활동 지원 필요한 장애인	· 지역사회 정착 초기 적응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대상자 발굴		· 자립지원 관련 정보제공 · 욕구조사 및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 준비 단계	주거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연계 - 당사자 계약에 따른 1인1가구, 주거비용 자부담 원칙 · 주거환경개선비 (1인 6백만 원)	
	자립 정착금	· (지자체별 자체) 자립정착금 지원 (5~15백만 원 수준)	
소득 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등	
권익지원		· 공공후견인 및 공공신탁제도, 재무관리 교육 지원 등	
주간 활동 및 지역 사회 참여	자립지원 인력	· 지역별 장애인 4인당 1인 기준으로 배치(지자체별 추가배치 가능) · 사례관리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활동 지원	· 활동지원서비(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월별 60~480시간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본 100시간, 단축형 56시간 등) · 지자체별 추가 지원(지자체별 월 10~100시간 내외) · 시범사업 별도 지원 (4명당 지원기준) ▶자립지원형(3명) : (기존) 月 20시간 → (확대) 月 40시간 ▶집중지원형(1명) : (기존) 月 150시간 → (확대) 月 200시간	
	일자리 참여	·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재활시설 연계 등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 참여 신청 시 선발 우대(가점 10점)	· (본인 희망 시) 직업 적응 훈련시설 훈련 연계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 참여 신청 시 선발 우대(가점 10점)
	보건 의료	·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연계 · 건강검진비 1인 40만 원 · 보조기기 구매 지원 1인 300만 원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방문 건강 관리사업 연계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협력
	문화 및 여가활동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역주민 조직활동 등 민간사업	
야간 및 긴급대응		·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지역 내 소방서 안전점검, 경찰서 등 지역자원 연계 · 기타 실종, 이탈 예방 관련 자체 사업	

* 음영 : 시범사업 별도 예산 지원사항